

# 부처님 법 만난 게 다 전생의 인연 덕분



법왕사 회주  
문인 스님



서 들음의 처(處)와 소리의 처(處)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본래부터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품인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귀는 있으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 또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눈은 있으되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소리도 색도 허망한 것이다. 중생들의 삶이란 육근(六根: 눈, 코, 귀, 혀, 몸, 마음)에 의지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쫓아다니는 허망한 삶이 아닌가. 문인 스님은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에 이끌려 다니는 것은 마음과 몸을 분주하게, 끈끈하게 할 뿐이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은사신 정도원 스님은 계율에 철저하였다. 심지어 ‘뒀간 갈 때 사용했던 손전등을 법당 갈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한 번은 뒀간에 갈 때 들었던 손전등을 법당에 들고 가다 은사스님과 마주쳤다. 은사스님은 그 자리에서 은박으로 덮인 렌즈를 뒤으라고 일렀다. 은박으로 덮인 렌즈를 뒤어버리니 불빛이 희미해져 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계율에 관해서 엄하신 은사스님의 가르침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밑바탕이 되었을 뿐더러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다.

석우 스님으로부터 조주 ‘무(無)자’ 화두를 받고 좌복 위에서 화두의 꽃을 피워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는 좌복 위에서의 공부를 견고 다른 이가 공부할 지어날 수 있도록 외호하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인 스님은 해인사 선방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였다. 낮에는 공양간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능엄경>을 배우는 등 잠으로 신심 나게 살았던 때라고 한다. 그때 하심(下心) 제일이라는 지월 스님을 만났다.

지월 스님은 선방에서 임승소임을 맡았고, 그러다 유나소임을 보았다. 지월 스님은 누더기 입고 주장자 하나 들고 말없이 해인사를 20년 동안 지켜낸 분이다. 지월 스님은 한없이 겸손하여 ‘나’라는 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산부처’ 처법 느껴졌다.

한번은 해인사 도량에 독감이 만연하여 온 대중이 감기에 시달렸다. 그래서 대중들은 명태를 사다가 저 산 아래 냇가에 가서 술을 걸고 명태국을 끓였다. 이 소식을 들은 지월 스님은 명태국을 끓이는 곳으로 갔다.

“보살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에 고렘약을 끓이고 있습니다.”

지월 스님은 “에이, 고렘약 냄새 참 고약야.” 이 말씀 한 마디뿐 평중도 뒀도 없었다. 지월 스님은 스님들을 부를 때 항상 ‘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것 또한 하심의 극치가 아닐까 싶다. 누군가가 걸망을 지고 산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양손을 벌려 막아서면서 “이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두고 어디로 가려는가” 하고 말했다.

지월 스님은 아무런 상 없이 대중들을 보살렸고, 하심과 인욕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고 한다. 육조 스님이 “남의 허물이 곧 자신의 허물이라”고 했듯이 지월 스님은 남의 허물을 자신의 잘못인양 마음 아파하고 허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들뜬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한 장의 나뭇잎이 뽀얗게 물든데도 하늘과 바람과 계절의 말없는 동조가 필요한 것이다. 자연의 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계곡에는 물소리가 흘러넘쳤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간 홍송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소년의 눈에는 아름답리 큰 홍송들이 울창하게 들어 선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입주문을 지나 봉황문에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언젠가 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출가의 길이 될 줄은 몰랐지만, 소년은 해인사에서 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다.

소년은 산골 동네의 훈장으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명심보감>부터 해서 <논어> <맹자>를 배웠다. 누군가가 해인사에 가면 한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스치듯 지나가는 이 한 마디가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열네 살의 어린 소년은 한학을 배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나와 해인사 백련암으로 갔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학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지만 전생에 이미 해인사에 이련저런 인연들을 심어놓았기에 인연 따라 찾아왔던 것’이라 한다. 정도원 스님은 은사로 불조의 제자가 된 것이며, 당신의 초발심을 아꼈던 준 여러 어른 스님을 만난 것을 두고 전생의 연이라 생각한다. 또 당대 최고의 강백인 운허 스님 문하에서 사집(四集)과 대교과를 익힌 것을 두고 다 전생의 복으로 돌린다. 절집에 몸을 맡긴 세월이 육십여 년, 그동안 강산이 여섯 번 바뀌었지만 출

## 부석사·봉정사 주지로 가람 수호에 20년 바쳐

### ‘욕심’ 날 때 왕위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 떠올려

가의 길에 들어선 자가 어저께 같다면 문인 스님은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덧없는 것’이라 했다.

세방골에 위치한 법왕사에 들어서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상이 먼저 반긴다. 사자후를 내뿜기라도 하는 듯 큰 입을 벌린 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자상. 세세 생생 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을 지켜내겠다는 강건한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

문인 스님의 방은 소박하고 조촐하다. 수십 년은 족히 될 않은 옛 이책상 하나와 벽 한쪽에 낫게 매어 단 책꽂이가 세간의 전부였다. 세남 칠십이 넘은 스님은 몇 해 전부터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병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격정이 앞서서 마

음에 ‘왜 보청기를 끼지 않느냐’고 여쭙었다. 스님은 보청기가 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나이가 들면 ‘조금 적게 듣고 조금 적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 답했다.

스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준다.

“아나야, 이 기타 숲의 절에서 공양시간이 되면 북을 치고, 대중이 모이는 시간에는 종을 친다. 종소리,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소리가 귀에 오는 것이냐 귀가 소리 나는데 가는 것이냐?”

만일 소리가 오지도 않고 귀가 가지도 않는다면 소리를 듣지 못하여야 하는 것, 그러므로 듣는 것이냐 소리가 모두 처(處)가 없어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근육** 배설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패장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